내년에 전문대학원 11곳 개설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 본격화… 용인 화운사에 국제불교학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진행 중인 승가교육 기관 개편과 관련해 강원 9곳이 현대화된 교과목으로 개편되고, 전문대학원은 선운사·유마사 강원이 승가대학원으로 전환되는 등 10여 곳이 설립된다.

교육원은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가교육불사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교육원 안에 따라 전통강원 교과목을 개편 신청한 강원은 사미 7곳(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쌍계사 송광사 수덕사 범어사)과 사미니 2곳(운문사, 봉녕사)으로 전체 기본교육기관 22곳 중 40% 가량인 9곳이다.

교육원은 이들 기본교육기관에 대해 승가대학령에 기준해 2011년도 신입생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종단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원이 제시한 교과목 48개 과목을 기준해 상당수의 강원이 20개 과목 이상을 기존 강사를 활용하는 계획을 알려왔다"며 기본교육과정 개편의 걸림돌이었던 기존 강사 처우문제도 원만히 해결됐음을 시사했다.

또, 전문대학원은 율학 3곳(동화사 송광사 봉녕사), 한문 3곳(동화사 봉녕사 운문사), 선학 2곳(유마사, 범어사), 실상사(화엄)·선운사(초기불전)·봉선사(능엄) 등 교학 3곳으로 10곳이다. 전체 전문교육기관 11곳 가운데 강원에서 기관 전환한 선운사·유마사를 제외하면 90%에 가까운 기관이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선택했다.

법인 스님은 "내년부터 승가대학·승가대학원의 교육내용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종단이 추진해온 승가교육 개선에 대한 노력이 교육현장에서 수용돼 시행되는 것으로, 승가교육기관 발전에 대한 종단적 의지와 사중의 의지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총무원장스님의 담화문에 대해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 회장 법광스님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과 강사스님과의 갈등이 해결된 것은 없다. 단지 공청회 등을 통해 하나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계종 교육원은 해외포교에 힘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불교학교를 용인 화운사에 설립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 모집 규모는 10명이다.

신입생은 기초영어회화가 가능하고 국제포교에 원력이 있는 조계종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 구족계 수지 예정인 사미니스님도 지원 가능하다. 조계종은 국제불교학교 학인스님 전원에게 2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다. 2년 과정을 마치는 스님들은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인정 받고, 종단 국제회의와 국제 행사 진행과 통역, 외국인 대상의 템플스테이 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 접수는 12월 1일~2011년 2월 22일까지이며, 면접은 3월 3일, 합격자 발표는 3월 11일로 예정됐다. 입학식은 3월 23일 화운사에서 열린다. (02)2011-1802

조동섭 기자

태고종 제7기 전법사계 수계산림 11월 24~25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 금강계단에서 봉행된 제7기 전법사계 수계산림에서 예비 전법사가 연비를 받고 있다. 조동섭 기자

[기 고]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 민학기

소속감이 신도회 살린다

사찰은 부처님과 대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대중들의 어려움을 부처님 법에 의지해 해소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사찰에서 스님들은 수행과 가르침에 진력하고, 재가불자들은 스님들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사찰 밖의 대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수행을 사찰에서 지원해야 한다.

신도법에 "신도는 종단과 사찰의 유지 및 발전에 동참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제4조 5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부분 사찰에서 사찰신도회가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다. 때문에 재가불자들이 사찰 내의 봉사단체 중심으로 사찰을 위한 봉사활동에 머물렀을 뿐, 사찰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반사회에서 조직적인 보살행을 실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계종 신도법에는 사찰신도회로 교구신도회를 구성하고, 교구신도회와 신행단체가 연합해 중앙신도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사찰은 등록신도 전원으로 구성되는 신도회를 두어야 한다"(제24조) "사찰신도회장은 사찰 신도회 회칙에 의해 선출해 주지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사찰신도회장은 신도회에서 신출해 주지가 임명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사찰신도회 임원은 사찰신도회장의 제청으로 신도회의 총회에서 인준한다"(제25조)고 규정돼 있으므로, 먼저 사찰마다 등록신도를 확정한 후 그 등록신도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찰신도회'에서 신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사찰신도회가 있어야만 교구신도회를 구성할 수 있고, 신도회에서 신도회장을 선출해야만 각 신도마다 사찰신도회, 교구신도회, 중앙신도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소속감이 있어야만 부처님과 종단을 외호하는 활동에 동참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각 교구본사는 해당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신도회 전체로 구성되는 교구신도회를 두어야 한다. 교구신도회의 대의원은 사찰신도회장으로 한다"(제27조)는 규정에 의하면, 현행 교구제는 지역적으로 정하지 않고 등록교구를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 부산에 있는 사찰을 2교구(경기도 용주사)에 등록한 경우에 2교구 신도회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교구신도회 구성원을 지역 내 말사신도회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찰의 대소, 참여의지의 정도에 따라 교구신도회의 대의원의 수를 교구신도회칙에서 1~3인으로 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 제36조 "전국 신도 대표기구로 중앙신도회를 둔다. 중앙신도회의 대의원은 교구신도회의 임원, 전국단위 신도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신도들이 참여해 사찰신도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교구신도회 및 중앙신도회가 구성될 수 있고, 사찰신도회가 부실하면 교구신도회 및 중앙신도회의 부실로 연결된다. 신도들은 주지스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각급 신도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사찰의 재정보조가 없으면 아무런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도회는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스님의 활성화 의지는 절대적이다. 재가불자들은 각자 재적사찰에 기도비 등을 시주하고 각종 불사에 보시하는 것만도 큰마음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재적사찰도 아닌 신도회, 교구신도회나 중앙신도회에 보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집행부에 재정까지 부담지우면 집행부의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지를 갖춘 집행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집행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주지스님의 활성화 의지 ▷종단 및 사찰의 재정부담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각급 신도회가 조직적인 동력을 갖추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포교기반을 조성해 종단을 외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법규위 업무, 종회서 호계원으로

초심호계원장 재원 스님 선출

조계종 법규위원회의 사무가 중앙종회에서 호계원으로 옮겨져 청원 심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호계원(원장 법등)은 11월 24일 호계원 전체회의에서 "법규위원회 사무를 호계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종법 개정안이 중앙종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의 관장 업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호계원 사무처가 법규위원회 사무를 다루게 되면 이같은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초심호계원은 제76차 회의를 열고 초심호계원장에 재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선관위원장 범여 스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4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에 범여 스님을 선출했다. 또, 26일 열린 하동 쌍계사 산중총회에 주지로 입후보한 성조 스님에 '자격 이상없음'과 산중총회원 83명을 확정했다.

법일(은해사)·원경(송광사)·만당(백양사) 스님 등이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에서 탈락해 제출한 선거소청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조동섭 기자

해외교구특보에 종민 스님 등 임명

사회-월공 스님, 문화콘텐츠개발-법해 스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담당 특별보좌관에 종민 스님, 사회담당특별보좌관에 월공 스님, 불교문화콘텐츠개발담당 특별보좌관에 법해 스님이 임명됐다.

해외특별교구담당 특별보좌관 종민 스님은 동안거 입재를 위해 선방에 방부를 들인 무애 스님 후임으로, 불교문화콘텐츠개발담당 법해 스님은 종회 사무처장인 성효 스님 후임으로 임명됐다. 사회담당특별보좌관은 최근 개신교의 불교폄훼 등 불교계와 관련한 사회 현안이 급증함에 따라 신설됐다.

이날 추가 임명으로 총무원장 특보단은 특보단장 정념 스님, 종단정보전산화담당 정범 스님, 불교연구소담당 태연 스님, 미디어홍보담당 장적 스님, 승가복지담당 초격 스님, 박기련 특보 등 9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특보단은 2주마다 종책과 관련한 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관음종 제7세 종정 남천당 죽산 대종사 종단장 봉행에 대한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1월 23일 열반하신 대한불교관음종 제7세 종정 남천당 죽산 대종사의 종단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정부인사 및 사회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2월 1일

▣ 남천당 죽산 대종사 49재 일정 안내

구 분	일 시	장 소
초 재	불기 2554년 11월 29일 (음 10. 24) 오전 10시	약사원
2 재	불기 2554년 12월 6일 (음 11. 1) 오전 10시	
3 재	불기 2554년 12월 13일 (음 11. 8) 오전 10시	
4 재	불기 2554년 12월 20일 (음 11. 15) 오전 10시	
5 재	불기 2554년 12월 27일 (음 11. 22) 오전 10시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6 재	불기 2555년 1월 3일 (음 11. 29) 오전 10시	약사원
49재	불기 2555년 1월 10일 (음 12. 7) 오전 10시	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

⊙ 문 의 : 총무원 ☎ (02) 763-0054, 3345
약사원 ☎ (054) 278-9109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 홍 파